



한국 불교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합시다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OO 스님께서 한국불교를 접한 후 귀국길에 하신 말씀이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인 스님이 우리나라 큰 절에서 몇 년간 수행하다 산문을 나서면서 역시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라고 했다. 그 소리를 변방에 있는 소납도 알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크고 작은 절집을 지키는 큰 주인공들이 신문이나 방송 그 어디에서도 말이 없다. 오로지 수행 차원에서 아직도 병어리 0년, 귀머거리 0년, 봉사 0년 중이신가? 분명한 것은 곰팡이는 햇볕을 쬐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기에 그런지 부처님 전에 고해성사라도 해 보자.



* 부처님 저희 절은 돈 액수에 따라 큰 등, 작은 등등을 구분해서 달아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월급쟁이 부처님을 두고 공양주가 해 주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법당 바닥에 구멍이 있어 그곳을 통하여 밑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제 몸에서 광채 나는 사진을 찍어 그것을 나눠주고 간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인등, 108등, 사업성취의 등, 재수의 등, 합격의 등, 승진의 등 등을 달고 축원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영가 천도 전문 도량으로 사주나 점을 보아 천도재를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49일로서는 안되어 1029일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신도들과 밥상을 같이 하지 않고 독상을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조상을 함시 모시는 뜻에서 고액을 받고 만년위패(평생위패)를 모시고 있고,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신도들에게 신심을 고양시키고자 생년월일에 맞게 달마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가피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줄을 서게 한 다음 사례비를 받고 이마와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신도들에게 제 생일을 알려주고 해마다 찾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부처님 몸속 법당이 있어 그곳에서 극락발원 티켓을 팔고 있고, 소지자에 한해 극락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00만 염주가 있어 그것을 일일이 잡고 도량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사주, 철학, 점, 관상, 수상, 명리..... 등등을 전문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사부정진을 천일동안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띠삼재(들삼재, 묵은삼재, 날삼재)를 풀이 및 기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삼재 해당되는 이들에게 남녀 속옷을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그에 해당하는 부적을 방편으로 팔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생전에수재시 전생의 빚을 계산해서 재물과 돈을 부처님전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큰 행사시 부처님 말씀인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어쩔 수 없이 기부금확인서를 떼어주고 그에 대한 성의 표시도 등도 달고 보시를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가 많아서 품위유지상 그에 맞게 최소 00급 이상 고급 차를 타

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000 다라니 기도를 00만 번을 했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집터 및 밭자리..... 등등을 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해마다 산신제와 산신기도, 용왕제와 용왕기도를 꼭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옛 조사 00스님이 창건한 절로써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도량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바위구멍과 탑 속에 금개구리가 있는데 보통 인연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 부처님 저는 치매 예방차원에서 화염경(화투)공부 및 카드놀이를 꾸준히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종단내 중책 소임과 관장, 원장 등등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기업식으로 조직(총신도회, 관음회, 지장회, 반야회,보현회, 정진회.... 등등)이 잘 되어 있어 행사시 걱정이 없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우리 절 큰 스님, 우리 절 스님들 가르침만 따르게 합니다.
 * 부처님 저는 선방 수좌로서 몇 십 안겨째 정진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간화선이 최고라 평생 앉아서 화두 탐구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위빠사나 수행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신비한 바위가 있어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돌덩어리가 있어 소원을 빌고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우담바라가 피어 그것을 친견케 하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목탁 소리를 내는 소가 있어 불자들로부터 친견케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스님이었다나.....)
 * 부처님 저는 재를 지낼시 저승길에 노자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놓게 하고 절을 사키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제가 쓴 시를 고급스럽게 제작하여 절 입구에서부터 진열해 놓고 그것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뵈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도들과(00암, 해외00성지.... 등등) 바깥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산과 들, 강을 찾아 물고기, 조류방향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경이런 경은 모두 염송하는 염불만 하고 있고, 제 염불소리에 노보살님들이 흥얼대기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심을 돋우기 위해 철야정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00 문중에 00 상좌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절 수행으로 108배, 1000배, 3000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사부대중으로부터 큰 스님이란 칭호를 듣고 (금모자 및 금색 옷)을 입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 덕에 법사로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고비를 받는데 그 단위가 꽤나 큼니다.
 * 부처님 저희 절 신도들은 일제히 유니폼을 갖추어 입고 법회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 카드 작성시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들과 더불어 술과 향도 합니다.
 * 부처님 저는 평생 도량 불사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1년에 100일씩 수행생 합격 발원 기도 (사진 부착)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새해엔 꼭 운맞이기도 (운수대통기도), 재수대통기도를 하고 있고 매일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주지 진산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성대히 치르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제가 대중 앞에 입장시 00 스님 입장 하십니다 하며 전부 일어서게 하고, 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 물론, 합창단과 음악도 함께 합니다.
 * 부처님 제가 수하고 있는 가사, 장삼을 비롯해 모든 승복이 꽤 값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불보살님의 가피 받은 손이 있어 그 손으로 기 치료도 해 주며 침도 놓고 피도 빼고, 전신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큰 행사시 해신 곳과 살풀이곳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소원을 받고 동전을 바위에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에는 신비한 숲이 있어 손으로 힘껏 문지르며 소원을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죽비로 내방객들에게 등짝을 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선방이 최고다 하여 앉아 있음을 즐기다 보니 육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 부처님 저는 불학에 매진한 결과 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부처님 저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세속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 고급 스포츠인 골프나 스키..... 등등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세계 최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성할 겁니다.
 * 부처님 저희 절에 계신 부처님께 제일 화려한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경내에 납골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부처님 옆에 은사 또는 장건주 영정을 모시고 조석으로 예배하고 있

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전각을 많이 지어 노선에 불전함을 두어 보시케 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경전, 조사어록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사꾼과 무당들이 보는 잡귀 책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운과 명복을 비는 기복 불교, 소비성 불교와 비생산적인 불교는 사머니즘에 준하는 것이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예 불교의 존립 자체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당연히 법사가 입으로 (중생은 재보시, 출가자는 법보시)를 강조했으면, 누구보다 먼저 출가자는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비구는 걸사라 했는데 걸사는 걸식으로 살아가며, 누더기를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서 출가자는 청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의 벼슬은 닭 벼슬보다도 못하다고 했거늘 왜 명예와 권력을 버리지 못하는가? 버리라고 법문은 많이 하면서..... 놓고 비우면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4조이신 도신스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백장회해로 이어진 그 유명한 스님의 일화가 있지 않은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 이 말을 잊었는가? 이른바 수행자는 농사를 짓는 농선쌍수(農禪雙修)로서 이는 도신으로부터 비롯됐음을 바른 길을 가는 남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어 수행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굳이 골프, 스키..... 등 고급스포츠를 해야 하는가? 백장스님의 선화(禪話)중에는 노동을 근본으로 하는 공안이 많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이점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교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또 엄청난 돈을 들여 국내외로 부처를 찾으러 밖으로 밖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으로 살피서 찾는데 주력하며, 그 막대한 차 기름 값과 경비로 오늘도 병원이나 달동네에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것은 인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인간방생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부터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물고기나 동물 그 어떠한 미물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일부 사찰에서 정법을 내세우며,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며 하는 행위는 인등, 성지순례, 평생위패, 만년위패, 방생, 삼재풀이, 삼재기도, 사주, 부적, 신비, 영험 등은 잠상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경전에 나와 있는가? 다만 부처님 말씀인 경전과 조사어록 말씀 여러 곳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도 이와 같은것을 하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다.

과연 불교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불보살이 무섭지 아니한가?

제발 앉아서, 말 장난으로 대중을 호령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양심있는 지도자가 됩시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